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헌신합니다.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과 희생은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는 O.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텔라와 짐이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사랑하지만 너무 가난했습니다. 부인 텔라가 가진 것은 훌륭한 머리카락이었고, 남편 짐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시계줄 없는 금시계뿐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부인 텔라는 남편 짐을 위하여 선물을 사야했는데 가진 돈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텔라는 나가서 그의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의 금 시계줄을 선물로 샀습니다. 남편 짐이 집에 돌아와 머리를 잘라버린 부인을 보고 깜짝 놀라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참 후에 짐은 그의 아내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 선물은 아내의 머리칼에 꽃을 보석 장식품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금시계를 팔아 마련한 선물이었습니다. 결국은 쓰지 못하는 선물들이었지만 남편과 아내는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마음도 줍니다. 내 모든 것을 아낌 없이 줍니다. 사랑은 무조건 적입니다. 사랑은 맹목적인 것입니다. 거저 주고 싶고 주고 또 주어도 아까운 것이 없는 마음,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누가 뭐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척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날, 그 드리고 싶은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드리는 감사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은 최상의 감사요 가장 성숙한 감사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형편과 여건은 어려움이지만 그 가운데 혹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드리는 감사를 말합니다.

본문의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평소에 로마에 오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로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오기는 왔지만 죄수의 몸으로 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참으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괴로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므로 평소에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로마의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므로 오히려 시위대와 로마권력의 핵심세력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감옥에 들어감으로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다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자신은 비록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손해나 실패가 아니고 은혜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 순간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임과 감사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에서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부딪힌 현실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순탄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매임과 감사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내게 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깨달아야 합니다.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에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드리십시오. 무엇보다 깨닫는 감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넘치고 있습니다. 진실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関東地方会> 女性会 60周年

讃美とみ言葉の夕べ開催



지난 9월 30일 (주일) 오후 3시 30분부터는 태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관동지방회 여성연합회 60주년 <찬양과 말씀의 밤> 행사가 동경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제 1부는 동경교회 글로벌 찬양단의 찬양 인도에 이어서 동교회 김해규목사가 “복음의 동역자 (福音の協力者)”라는 설교를 통하여 모인 이들에게 많은 가르침과 협력자로서의 책임 등을 가르쳐 주었다.

(3面→)

在日同胞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 2006年4月25日、創立100周年を迎えました。



- ◆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ホテル):フロントは日・韓・英語を対応、24時間サービス。10名様から200名様までの会議及び宿泊研修(50名様)も可能。
- ◆スペースワイホール:22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最適
- ◆韓国文化(チャング・カヤグム・舞踊)教室・韓国語講座・各種子どもクラス
- ◆YMCAアジア語学院(日本語学校)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2-5-5 TEL 03-3233-0611 FAX 03-3233-0633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TEL 06-6981-0781 FAX 06-6981-0782

(税込み)	平日	休・休前日
シングル	¥6,300	¥5,040
ツイン	¥11,550	¥9,240
トリプル	¥14,490	¥11,592
朝食¥200	カルピックッパ、コムタン、ユッケジャン、韓定食、洋食(全メニューコーヒー付き)	

い어서 第 2 부로 진행된 찬양의 밤에서의 찬양 순서는 横浜教会, 川崎教会, 東京第一教会, 西新井教会, 横須賀教会, 東京中央教会, 東京教会였다. 그리고 船橋教会, 品川教会, 東京蒲田教会가 합동찬양을 하였다. 특별 순서로는 심순악 장로(横浜教会)가 허사가를 피로하면서 관동지방회 여성연합회 60 주년 기념행사가 막을 내렸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기도의 사명자로서 지난 60 년간 여성회가 걸어온 길을 이어나가는 관동지방여성회가 되어 가길 기원해 본다. (報告: 김혜진書記、川崎教会)

＜西南地方会＞ 前原開拓伝道 4 周年記念礼拝挙行



西南地方会伝道部(部長: 崔榮信牧師)が、九州大学移転地域での集会を開始、4 周年を迎えた。

去る 10 月 24 日、毎月第 4 主日に日本基督教団前原教会堂では、地元の信徒や西南地方会から 25 名が集い、感謝の礼拝と祈りを捧げた。崔正剛牧師(博多教会)は、「主の戦い」(サムエル上 17:41-47)と題して説教した。崔牧師は、「日頃、主に頼って生きる習慣が決定的な結果を生む」と言い、この集会の意義を熱く語った。

そして西南地方教会女性連合会の会長である金幸子長老からは、激励のメッセージが、地元代表の朴恩珠さんは、集会への篤い思いが語られた。

引き続き、感謝交流会では地元の方々の手作り料理を共にし、信仰共同体の喜びを分かち合った。

(報告: 朱文洪)

日本キリスト教会と宣教協約第 15 周年記念集会に際して

第 44 回定期総会(1997.10.21~23. 福岡中央教会)において日本キリスト教会との宣教協約を批准して以来、15 年を迎えた。11 月 23 日(金)名古屋教会を会場にし、両教会による記念集会が催される。日本キリスト教会と在日大韓基督教会とは、この日本の地にあってお互いが見える存在として、苦難に傷つき悩みを負った者と共におられたキリストのみ業を、今日も、わたしたちに現わさせてくださいと祈りを合わせる教会でありたい。(報告: 総幹事)

＜西部地方会＞ 女性連合会主催 第 25 回修養会挙行



去る 10 月 8 日～9 日、西部地方教会女性連合会主催による第 25 回修養会が神戸のシーパル須磨で、森田喜之牧師(日本キリスト教団名古屋中央教会)を講師に迎えて開催された。参加者は牧師 3 名を含む 29 名であった。

開会礼拝は、崔美恵子副会長の司会で、梁榮友牧師より「キリスト者の信仰鍛練」(1ペトロ 1:6~7)というメッセージと祝祷で終わった。講師の森田喜之牧師は、「共に生きる」という主題で、第 1 講演では「永遠の命に至る水」(ヨハネ 4:1~9)と題し、周りから疎外され昼に水を汲みにきたサマリヤの女に対し、イエスは「貴方は私にとって必要なのだ」と言われた例を挙げ、挫折の持つ意味を説かれた。何かを持っているから出会いがあるのではなく、挫折から出会いに依り生きる大切さ、自分の生きる意味を知るのがたとえられた。

二日目の第 2 講演では「主によって養われる交わり」(ヨハネ 6:1~15)と題し、私達に与えられた課題、物に対して、簡単に切り捨てるのではなく、神が用いて下さるまま、生かして下さるまま喜んで捧げる事で、主によって交わりが与えられると説かれた。

その後、「癒しと平和をください」(シンフォニアエキュメニカ)から、すべての時は神が定められたものであり、私達を癒し、平和を与えて下さいと全員で祈り、お互いの手に油を塗りながら、神の癒しがあるようにと祈った。質疑応答の後、閉会礼拝に移り、中江洋一牧師が「報酬ではなく恵みを」(ローマ人への手紙 4:1~5)と題したメッセージをした。

今年の修養会は例年に比べ小人数の参加であったが、その分全員が輪になってメッセージを聞く事が出来たり、隣の人の手に油を塗ったりすることで、例年の修養会とは違った新鮮さや感動があった。又、参加者から悩み苦しみの末参加したが、自分の答えを与えられた恵みに感謝するという声も多く聞かれた。癒された喜びを主に感謝し希望を持って帰途に着いた。(報告: 寶景淑書記)

創世記連載は、紙面の都合上、今月は休みます。

＜西南 KCC＞創立 30 周年記念 祈り・チャンゴ・在日の歌等

西南 KCC が創立 30 年を迎えた。その節目に、感謝礼拝とお祝いの集会在、去る 10 月 21 日(主日)、北九州会館で行われ 88 名が参加した。

創立初期から関わって来た崔正剛牧師(第2代理事長、博多教会)は、設立の背景と初代理事長の崔昌華牧師とその支援者達の活動等を証言した。崔ぼくしは、「1970 年代、在日同胞は自分達の理不尽な状況を日本社会に訴え、総会も同胞の苦しい現実に向き合えなかった」と言い、宣教姿勢を悔い改めた。そして、1973 年米国の公民権運動が盛り上がる米国で視察研修を行ったこと、そして米国の監理教宣教部(UMC)は在日の困難な状況を知り、財産譲渡計画を変更し、教団と在日大韓基督教会をも対象に入れる事にしたこと。さらに、福岡市舞鶴と北九州市小倉の財産が教団と総会との共同所有になった経緯等を説明した。それで西南地方会は、1982 年に西南基督教会館理事会を構成し、UMC から頂いた財産を「少数者・青少年・女性」人権回復運動の拠点とし、西南韓国基督教会館を立ちあげた。



続いて、李圭哲長老(理事長)の挨拶後、洪性完総幹事、東島勇気九州教区代表、金貞姫全国女性連合会長、鄭守煥西南地方会長、犬養光博友人代表が祝辞をした。その中で犬養牧師は、「むのたけじ氏の『希望は絶望のど真ん中に』』という本を紹介し、著者が訴えた事の一つとして、「憲法 9 条で国家体制として骨抜きにされた戦後の日本が隣国に犯した過ちを真剣に反省し補償したなら、アジアから尊重される、今とは違う国になったはずだ」との思いを追求した歩みであったと励ました。

そして祝宴では、朴康秀氏が率いるサムノリ(사물놀이)と李陽雨氏の歌、小倉教会女性会の手作り料理を御馳走しながら盛り上った。北九州小倉ブランチは、2007 年の会館完成以降、「朝鮮民族の強制連行・労働写真パネル展」(林えいだい氏提供)、「日本軍慰安婦被害者」(ナナムの家等から提供)資料を常時展示、トラジ学園の他、市民運動の場を提供し、九州教区分室を置き、宣教協力の実質化を計っている。そして福岡ブランチは、福岡中央教会の礼拝と宣教活動・地域の諸人権集会の場となっている。

(報告：朱文洪)

＜関東地方会＞東京希望基督教会 長老将立式・勸士・按手執事



지난 10 월 14 일(주일) 오후 4 시부터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에서는 합병 후 교회설립 2 주년을 맞이하여 장로장립식과 취임식과 권사 및 안수집사취임식을 거행되었다.

1 부 예배는 김동수 담임목사의 사회로 김근식목사(한사랑교회)의 기도 후에 김병호목사(東京調布教会)가 “약한 자를 택하심은”(고전 1:26-3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2 부 임직식에서는 부지방회장인 김건목사(川崎教会)의 사식으로 당회 서기인 오영석장로가 임직자를 소개한 후, 박원수, 김규환, 신대영씨가 장로장립식과 더불어 부봉추장로의 장로취임식도 거행되었다.

이어서 김동수목사의 사식으로 황명상, 안종관, 황세훈, 박형균, 김훈, 이재우, 안영길 집사의 안수집사 임직식과 유정희, 배숙경, 문미선 집사의 권사로 취임식, 한영자권사의 명예권사 추대식이 거행되었다.

3 부 축하의 시간에서는 김근식목사(東京教会名誉牧師)의 권면, 본 교회 중장단의 특별찬양, 조중래목사(船橋教会), 이청길목사(東京聖書教会名誉牧師), 조영상목사(재일한기총 전국회장), 峰野龍弘 목사(淀橋教会), 土肥隆一목사(衆議員議員)의 축사가 있었다. 그 후, 임직자들에게 축하 기념품을 나누고 나서 본 교회 명예목사인 김종기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본당을 가득 채운 성도들과 축하객들은 3 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 속에서도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이로서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는 동경닛뿌리교회와 타마그리스도교회가 합병한 후 재창립 2 주년을 맞이하면서 15 명의 일꾼들을 세움으로 관동지방회와 총회 내에서 든든한 교회로 새롭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報告：장경태목사、関東地方会書記)

東日本大震災 KCCJ 募金口座案内

- ・銀行(BANK)：三菱 UFJ 銀行
(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 Ltd)
- ・支店(BRANCH)：高田馬場支店(TAKADANO-BABA)
- ・種類(SWIFT)：普通預金(BOTKJPJT)
- ・口座(A/C)：053-1615275
- ・名義：在日大韓基督教会総会
(THE KOREAN CHRISTIAN CHURCH IN JAPAN)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 100~110 周年標語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感謝の百年、希望の百年
(데살로니가전서 5:18)

2012년 11월 1일 (土) 第 713 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1部100円)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 2-3-18
電話 03 (3202) 5398
発行人 / 金 武 士・編集人 / 洪 性 完
fukuinshinbun@kccj.jp (福音新聞)
info@kccj.jp (総会事務局)

秋收感謝節說教

매임과 감사 (빌립보서 1:12-14)

권영국목사 (福岡教会)



암을 극복하기까지의 감사

저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4일에 십이지장 유두부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말씀 (출 14:13) 으로 담대하게 주일 설교를 마치고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황달 수치가 내려가지 않아 두 번이나 수술날짜를 연기하면서 두 달이 넘게 죽음의 암흑 속에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 때에 드렸던 기도는 지난 20여년 동안 묵회하면서 했던 기도보다 훨씬 더 많고 깊은 절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새롭게 요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요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는 어떤 것을 청원하는 것만이 아니고 감사도 포함합니다. 요나는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요나 2:9). 하나님은 물고기 배속에서 드리는 요나의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데 두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암에 걸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황달이 사라져서 7월 10일에 13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퇴원하여 묵회를 하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가을 대심방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성격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습관적으로 불평이나 원망의 말이 입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뭘 잘해줘도 불평이고 은혜를 받아 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가득합니다. 둘째는 현실에 좌우되는 사람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감사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으며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입술이 긍정적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면서 감사를 먼저 외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빵을 먹게 되기까지는 15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씨를 뿌린 사람, 잡초를 뽑아준 사람, 도구를 만든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결국은 빵 한 조각을 먹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은 물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너의 발 하나가 부러지면 두 다리가 동시에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만일 네 두 다리가 동시에 부러지면 네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라” 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감사해야 할 것들

첫째는 받은 바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본원리입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학생이 스승에 대해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았고 은혜를 입었기에 그 받은 바에 대해 감사로 보답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것 누린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한번은 나병환자 열 사람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저들은 나환자였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 고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열 사람의 나환자가 다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것은 분명히 열 사람이 나음을 입었는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나환자들이 주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병만 고쳐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생각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병만 고쳐주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고침을 받았을 때 감사를 한 사람은 열 명 중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은혜는 받았습다. 문제는 은혜 받은 다음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때에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고 탄식을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주님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놓고 어떻게 더 큰 은총을 기대하며 더 큰 복을 받기 원하겠습니까? 주님은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감사할 줄 알았던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또 하나의 차원은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절에 사랑하기에 때문에 드리는 감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가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